

\*북극곰 ..... 2006

나는 너를 모른다

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

그리고 나는 너를 만나러 가지 않을 것이다

그러나 거기에 있는 너에게

언제나 “안녕?”

하얀 털의 무한한 부드러움

아기 곰을 품에 안고 졸고 있는 너의 모습

살을 닿아 본 듯 너의 촉감을 사랑한다

거기에 있음으로서 상상은 발생한다

소멸되어 가는 너의 소식을 듣는다

누구도 자신이 죽인 존재를 확장시킬 수 없다

상상이 죽는다